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 해 외 출 장 보 고 서 -

2018. 10

■ 출장지역 : 싱가포르

■ 출장기간 : 2018. 10. 7. - 10. 11.

■ 출 장 자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책임연구원

이영선 연구원

〈 차 례 〉

1. 출장 개요

- 1.1. 목적
- 1.2. 출장자
- 1.3. 출장지
- 1.4. 출장 기간
- 1.5. 주요 활동
- 1.6. 세부 일정
- 1.7. 인터뷰 일정

2. 조사 내용

- 2.1. 친환경을 고려한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
- 2.2.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추진 사례
- 2.3. 싱가포르 산학융합지구 개발 및 운영 사례

3. 시사점

1. 출장 개요

1.1. 목적

- 싱가포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URA)이 있으며, 첨단산업 단지 조성 및 관련된 사례는 싱가포르의 Jurong Town Corporation(JTC)에서 수행한 One-North 프로젝트임.
- 본 출장을 통해서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Jurong Town Corporation(JTC)에서 수행한 One-North 프로젝트의 조성사례를 살펴보고, 도시재개발 및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의 도시계획 관련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NUS의 Civil Engineering에서 참여한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과 관련하여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 혁신도시 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2. 출장자

- 정우성 책임연구원
- 이영선 연구원

1.3. 출장지

- 싱가포르
 -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주룽도시공사(JTC; Jurong Town Corporation)
 -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첨단산업단지 원노스(One-North)
 -

1.4. 출장기간

- 2018. 10. 7. (일) ~ 10. 11. (목)

1.5. 주요활동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 주도의 클러스터 구축 및 이후 실행력 제고를 위한 담당 기관과의 자문회의,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의 자문회의 개최 및 사례지역 조사
-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싱가포르 도시계획 관련 동향 파악
- 주룽도시공사(JTC; Jurong Town Corporation)
 - 싱가포르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및 원노스 개발 정책 동향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 사례 조사
- 원노스(One-North)
 - 바이오메디컬산업, IT, 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주룽도시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추진한 첨단산업지역
- JTC (Jurong Innovation District)
 - 로봇공학, 빅데이터, IoT 등 스마트 제조업 등의 창업 지원, 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서 NTU(Nanyang Technology University)와 JTC CleanTech Park 등을 포함

1.6. 세부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10월 7일 (일)	인천	싱가포르	(16:40) 인천 출발 (22:05) 싱가포르 도착
10월 8일 (월)			(10:00-12:00) URA 도시재생 관련 담당자 면담 - 스마트시티 조성 및 구도심 연계 재생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14:00-17:00) 싱가포르 내 스마트시티 운영 사례 조사 -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등
10월 9일 (화)			(10:00-12:00) NUS 방문 및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스마트네이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14:00-17:00) 첨단산업지구 One-North 방문 - 첨단산업 집적지구 방문 및 운영 사례 조사
10월 10일 (수)	싱가포르	인천	(10:00-12:00) JTC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면담 - 스마트시티 및 첨단산업지구 개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14:00-17:00) JTC Jurong Innovation District 방문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단지 운영 사례 조사 (22:40) 싱가포르 출발(이영선 연구원)
10월 11일 (목)	싱가포르	인천	(14:40) 싱가포르 출발(정우성 책임연구원) (22:15) 인천 도착

1.7. 인터뷰 일정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도시개발 관련 담당자 면담
 - 일정: 10월 8일(월) 10:00
 - 참석자: 김명훈 박사(URA), 정우성 책임연구원, 이영선 연구원(이상 국토연구원)
- 싱가포르국립대학 스마트네이션 관련 담당자 면담
 - 일정: 10월 9일(화) 10:00
 - 참석: Raymond ONG 교수(NUS), 정우성 책임연구원, 이영선 연구원(이상 국토연구원)
- 주룡도시공사(JTC) 첨단산업단지 관련 담당자 면담
 - 일정: 10월 10일(수) 10:00
 - 참석: Jonathan GOH(JTC), 정우성 책임연구원, 이영선 연구원(이상 국토연구원)



그림 1 인터뷰 담당자 명함

2. 조사 내용

2.1. 친환경을 고려한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

- **싱가포르 URA에서는 도시전반에 대한 계획(Master Plan, 2014)을 수립하며, 각 부문별(주거, 산업단지, 교통 등) 개발은 HDB 또는 JTC, LTA(Land Transport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토지이용계획은 2030년 인구 규모 650~690만 명 도시의 주거환경을 위한 컨셉플랜으로,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①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저렴한 주택 제공, ②생활환경과 통합된 녹지, ③교통연결성 강화를 통한 이동성 제고, ④좋은 일자리 제공, ⑤미래의 성장과 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토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싱가포르 토지이용 장기계획(Long-Term Planning)은 컨셉플랜과 마스터플랜 두 부문으로 구성되며, 컨셉플랜은 향후 40~50년 동안 싱가포르의 전략적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을 다루고 있음
 - 컨셉플랜(Concept Plan) 및 마스터플랜(Master Plan)
 - 컨셉플랜은 장기간의 인구와 경제 성장에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를 보장하며, 양질의 주거 환경과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마스터플랜은 컨셉플랜에 명시된 광범위한 장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토지용도 및 밀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1958년 처음 수립되고 이후 1980년, 2003년, 2008년, 2014년 총 5회에 걸쳐 발표되었음
 - 컨셉플랜과 마스터플랜의 검토는 각각 매 10년, 5년마다 진행되고 있음
-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역할**
 - 마스터플랜(2014)은 주택, 경제, 여가, 정체성, 교통, 공공 공간 등 6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주택 부문에서는 ‘친환경적 주거여건(Green Living), 접근성이 좋은 편의시설(Amenities within Easy Reach), 정체성(Enriched Identities) 등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URA(<https://www.ura.gov.sg/Corporate/>)

그림 2 URA 마스터플랜 목표 및 전략

- 친환경 주거여건(Green Living)은 자연과 가까운 생활, 주택의 친환경 유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DB의 프로젝트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HDB Greenprint는 친환경 HDB 마을 개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을 창출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목표 및 전략의 틀로서, Greenprint, Green Neighborhood, Green Flats 및 Green Communities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 확장
- 싱가포르 최초의 에코 타운 인 풍골 (Punggol)은 녹색 디자인 전략과 건축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 물 및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Punggol Northshore의 스마트 HDB 주택은 2015년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 완공되면 가정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공용 영역용 센서 제어 조명과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



그림 3 Punggol 스마트 HDB 주택

- 싱가포르의 Master Plan에 근거하여 주거, 교통, 경제, 정체성, 여가, 공공용지 등을 중요도시 내 오픈스페이스 및 스마트시티 조성



그림 4 URA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자문회의

○ URA의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

- 그린스페이스(Greenspaces)는 SkyVille@ Dawson 및 SkyTerrace@ Dawson 개발 중 아파트 층간 및 옥상 정원을 조성한 퀸즈타운 환경의 핵심 기능으로, 녹지가 현대 주거환경의 기반 시설에 직접 통합되는 "Park in Housing"개념을 증명

2.2.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추진 사례

■ 국가주도의 스마트시티 추진

- 싱가포르 스마트시티의 추진은 도시 전체의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동적인 도시 구축 및 도시전반의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ICT를 활용하여 주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국가 건설을 위한 '스마트 국가(Smart Nation)'을 비전으로 제시함



그림 5 NUS 스마트네이션 관련 자문회의

- 싱가포르 스마트시티의 성공전략 중 하나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국가차원의 사업인 점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는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등의 통합 데이터는 국가차원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총리 산하의 기구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혁신도시 등 교외지역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배경과는 다르나, 교외지역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
-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수익성을 고려하는 대신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스마트시티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NUS에서는 다양한 산학 협동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노스와 연계한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위해서는 NUS-One North-NUH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그림 6 NUS 내 산학협력 사무실

2.3. 싱가포르 산학융합지구 개발 및 운영 사례

■ JTC 주도 산학융합클러스터 조성

- JTC는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기존 기업의 재생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개발에 개발 목표를 둠
 - 신산업 성장 유도 및 기존 산업지구 재생 등을 위해 ①혁신적이고 유동적인 공간 조성, ②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 개발 수립, ③토지이용 최적화, ④혁신과 생산성 추진 등을 핵심 계획으로 삼고 있음
 - JTC는 주로 EDB와 신산업 지대를 개발하고, 싱가포르 기업청과 함께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 및 성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 산업단지는 총 8,200ha 이며, 총 13,9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음

JTC's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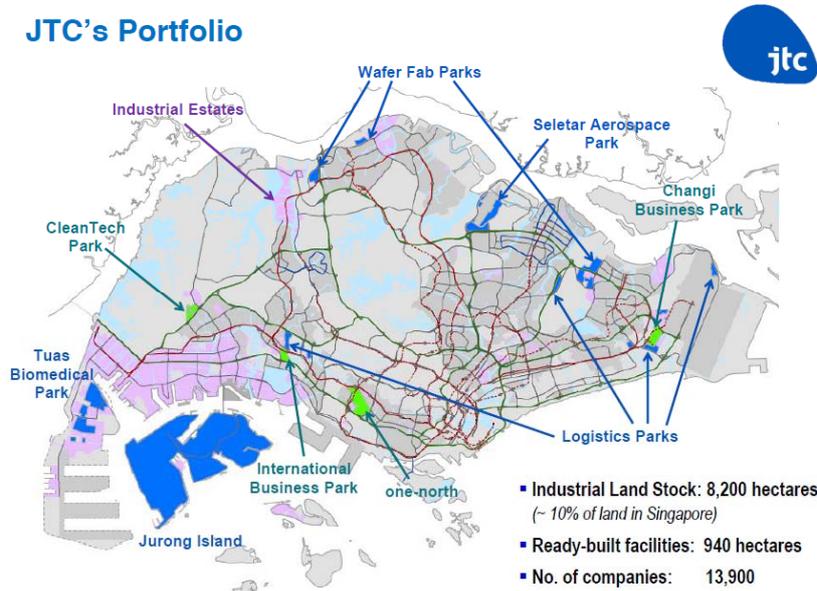


그림 7 JTC 산업단지 개발도

- 유동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ONE-NORTH와 JID(Jurong Innovation District)에 Launchpad를 조성하여 각각 NUS 및 NTU와 협력하는 공간을 조성하였음
 - 2018년 4분기에는 싱가포르기업청 및 관광청과 협력한 Design Orchard의 조성이 완료될 예정임
- 전문적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례로는 Seletar Aerospace Park, Jurong Island, CleanTech Park, ONE-NORTH 등이 있음
 - Seletar Aerospace Park는 항공우주 산업을 위해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 항공 관련 기업(다국적 기업 포함) 대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Aviation One, two, 항공우주 MRO 및 제조를 위한 공간인 Aero Space One, two로 구성되어 있음.
 - Jurong Island는 세계적 에너지 및 화학 기업의 허브이며, ExxonMobil, Du Pont 등의 기업이 입지해있음
 - CleanTech Park는 싱가포르에서 처음 선보이는 친환경 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산학연의 긴밀한 협업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 ONE-NORTH는 200헥타르 규모의 복합용도지구이며, 바이오메디컬, ICT, 미디어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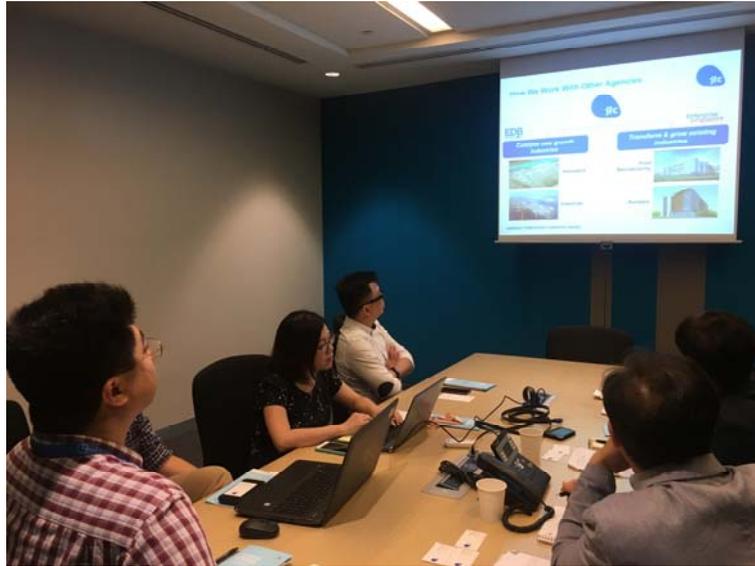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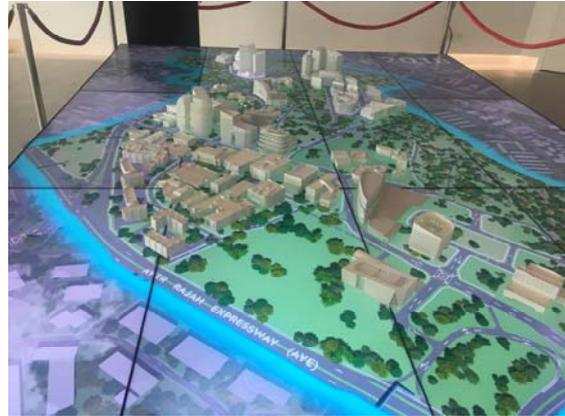


그림 8 JTC 산학 클러스터 조성 관련 자문회의

■ 원노스(One-North)

- 북위 1도에 건설되는 도시라는 의미로서 세계과학의 중심지, 다핵화 개발 등을 목표로 2001년 JTC (주룡도시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첨단 정보화 도시
 -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0억 싱가포르달러(미화 80억달러 상당)가 투입될 예정
 - 바이오메디컬산업, IT, 미디어산업을 육성·지원
 - 창이공항에서 45분, 싱가포르 중심부와 20여분 거리
 - 주룡산업단지, 사이언스 파크 등과 같은 주요 산업·연구시설은 물론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의 교육시설과도 근거리
 - 지하철인 MRT(Mass Rapid Transportation) 역이 부지 내를 통과하여 교통여건 우수



출처: JTC ONE-NORTH(<https://www.jtc.gov.sg/industrial-land-and-space/Pages/jtc-launchpad-one-north.aspx>)

그림 9 원노스 구역도 및 조감도

-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문화오락·주거·교육시설까지 완비하여 단지 내에서 모든 일과가 가능하도록 짜임새를 갖추
 - 연구단지 중심을 통과하는 그린벨트를 만들고, 쓰레기는 지하파이프라인을 통해 처리장까지 보낼 수 있는 시설과 지역냉난방시스템을 갖추는 등 환경친화적인 미래도시로 계획
 - 바이오폴리스(Biopolis),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 비스타 엑스체인지(Vista Xchange), 미디어폴리스(Mediapolis), 웨섹스(Wessex), 네팔힐(Nepal Hill), AyerRajah로 구분
- 원노스 내에는 창업 지원 공간인 Launchpad가 운영중에 있으며, 바이오메디컬, 정보통신, 미디어, 전자, 도시 솔루션, 엔지니어링 등의 신생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 생태계를 제공

BLK 69		BLK 75	
Social Collider	03-01/2/3	CognaLearn	01-01
		Fixability	01-03
		Innospark	01-17
		CardUp	02-04
		German Accelerator Southeast Asia	02-16
		24RED	03-14
BLK 71		BLK 77	
Workato	01-01	BeeBryte	03-33
Symphony Creative Solutions	01-03		
BLOCK71 Singapore	02-01		
TRIVE	03-26		
Pollinate	04-01		
Ugpay Technology (Sg)	04-22		
Glints	05-01		
pslove	05-09		
Neurotrend	06-15		
Plug and Play	06-18		
BLK 73		BLK 79	
Infinite Orbits	01-06	6Estates	01-05
ELXR	01-07/08	Action Community for	01-13/14
Vebits AI	03-05	Entrepreneurship	(also @Blk 67
		Jaga-me	#04-12)
		The Biofactory	01-10
			05-06
		BLK 81	
		ShopJJ	01-49
		Hiverlab	01-60
		LotusFlare	02-47
		PIXIBO	02-49
		ConnectedHealth	03-59
		Ackcio	03-69/70



그림 10 Lauchpad@ONE-NORTH 입주 기업

그림 11 Block 79 안내도

출처: JTC Launchpad@ONE-NORTH (<https://www.jtc.gov.sg>) 검색일자: 2018.11.12.

- 1단계로 구축된 바이오폴리스(Biopolis)는 바이오·메디컬도시로서 약 18만 5천m²의 부지에 바이오기술을 위한 공공연구소, 민간 바이오 기업, 병원 및 서비스기업들이 연계하여 입지하여 활기찬 연구공동체를 구축하였음
- 2단계로 추진된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중심지 퓨저노폴리스(Fusionopolis)는 바이오폴리스 북쪽에 두 개의 초고층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퓨저노폴리스 내에서는 정보기술과 전자공학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퓨저노폴리스에는 정보통신과 미디어 관련기업, 연구소, 주거시설, 지원시설(클럽하우스, 오디토리엄, 전시관 등), 문화상업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비스타 엑스체인지(Vista Xchange)는 고급 비즈니스센터, 주거기능과 원노스의 엔터테인먼트의 허브기능을 담당한다. 고층오피스, 호텔, 위락시설, 컨벤션, 주거단지 등 복합된 도시기능집적지로 조성되며, 교통허브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외 미디어폴리스(Mediapolis)는 미디어 관련 R&D, 업무, 호텔, 주거,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웨섹스(Wessex)는 창조적 공동체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룡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Jurong Innovation District: JID)**

- 난양대학교와의 산학협동을 통해 연구역량을 높이는 산학융합 클러스터 지구로 클린텍 1과 2, 런치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클린텍 3을 개발하고 있음



그림 13 JID LaunchPad

- HDB와 URA, JTC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창업공간 제공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클린텍 1(Clean Tech One)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 LED 조명, 센서제어, 태양광 전지 패널 등을 포함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공간임
 - 클린텍 2(Clean Tech Two)는 대기 청정 기술 관련 R&D활동을 위해 사무실, 실험공간 등을 제공하며, 청정기술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추고 있음
 - Launchpad는 기업가,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JTC에서 운영하는 첨단 제조, 도시 솔루션 및 엔지니어링 신생 기업(창업기업)을 위한 지원기관임
- 연구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와의 근접성으로 협력체계 운영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JID 내에는 난양기술대학과 협력하여 전기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실증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음



그림 14 JID내 전기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버스

3. 시사점

- 스마트시티 및 산학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한국의 스마트도시로서의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먼저, 싱가포르의 정부주도의 발빠른 대응과 관련 혁신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임. 싱가포르는 빈약한 자연자원, 작은 도시국가이며,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관광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옴.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1980년대부터 적극적인 ICT 정책을 추진하여 최고의 ICT 경쟁력을 유지해 옴.
- 2014년 싱가포르는 ‘스마트네이션’을 천명하고 스마트도시를 국가자원에서 적용하고자 함. 그 실천전략이 ‘인포컴 미디어(Infocomm Media) 2025’ 으로 정부부문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스마트네이션플랫폼을 비롯하여 사이버보안청, 버추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스마트네이션 구축방안을 제시함
-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스마트네이션 프로그램 오피스’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스마트네이션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와 JTC, 그리고 대학(난양기술대학)과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였음
- URA는 사실상 싱가포르의 계획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간의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JTC 는 단순히 개발용지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 및 관리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학(난양기술대학)과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대학에 연구실과 학생이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연구비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실용적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대기업은 JTC 등이 조성한 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에 입주한 벤처 및 기술기업에 각종 기술지원 및 장비대여, 자금지원을 수행하여 실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 한국의 혁신도시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혁신 도시의 유지 및 주변도시와의 상생전략이라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필수적이며, 이는 정부, 기업, 주민,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함
- 한국에도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용지, 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위한 공간과 이를 지원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이들 기능의 유기적이지 못하고, 중앙정부 역시 부처별 권한에만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침
- 대학과 기업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소극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싱가포르의 JTC 의 역할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계획 및 효율적이며, 종합적인 사업 집행 등은 그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의 정부사업 집행체계와는 다르지만, 기업과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와 혁신에 대한 도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 둘째, One-North 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전략적인 첨단 산업 군들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그들 산업간 융복합 및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디어, 컨벤션 기능 등 핵심지원시설들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간 융복합을 유도
- 기존 기업들과의 창업기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점은 인상적임. JTC 가 운영하는 주룡혁신지구(JID)에서의 런치패드(Launch pad)와 같은 신생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 기술과 자금지원 등의 공간과 기능이 One -North 에도 존재
- 특히 One -North는 한국의 판교와도 유사한 형태와 이미지를 갖는데, 한국의 판교가 유망 기업들의 집적에 가까운 형태라면, One North 는 지역은 기능별로 구분하되, 그 기능을 하나의 건물에 집중시킴으로써 접근성 및 관련기업들의 유기적 협력과 연구기능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지하철과 셔틀버스의 운영,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상업시설이 풍부하게 조성됨

- 셋째, 한국의 혁신도시는 그 규모나 이전 공공기간과 연계지을 수 있는 대학이나, 기업군이 풍부하지 못한 실정임. 대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의 경우 싱가포르의 One North의 일부 기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공공기관과 그 지역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 또한 지역과 지역민, 관련 기업들,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에 그 발전의 효과를 학습하고 공유하도록 하여야 함